

# 여보! 침대 하나 만들어 줄까?

## - DIY 친환경 가구만들기

김영철 대한석유협회 국제협력팀 차장



광진구 성내동 주택가 골목 빌딩 지하에 있는 반쪽이공방 광진구 지점, 공방 한쪽에서 요란한 소리와 먼지를 뒤집어 쓴 조미숙씨가 결혼 후 사용할 침대를 만들기 위해 원목 표면을 기계 사포로 다듬고 있다. 옆에서는 요란한 핸드드릴 소리와 함께 황병태씨가 아이들에게 줄 책상을 조립하고 있는 중이다.

대도시의 주거환경이 대부분 아파트로 변하고 있는 요즘, 새집증후군, 아토피 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최선이 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이

용한 DIY 가구만들기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조미숙씨는 결혼 한 달여를 앞두고 신혼집에서 사용할 가구를 직접 만들고 있는 중이다. 먼저 번에는 탁자를 만들었고 이번엔 침대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이 곳 공방에서 3달간 가구설계며 기본공구사용법, 페인트칠하기 등을 익히고 직접 가구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 1, 2달만 공방에 나가서 익히면 누구나 쉽게 가구를 직접 만들 수 있다

일반인들이 가구를 직접 만들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기본 공구사용법과 가구설계 기법 등 1,2달만 공방에 나가서 익히면 누구나 쉽게 가구를 직접 만들 수 있다.

지난해 1월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어렵게 공방을 찾아갔다. 몇 주일 전 마석가구단지에서 구입한지 얼마 안된 1단짜리 장롱을 버린 직후였다. 새로 산 가구에서 나는 페인트 냄새 때문이었다. 보일러를 며칠 동안 켜놓고 냄새가 나가길 기다렸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냄새를 잘 빨아들인다는 슯을 사다가 장롱 안에 넣어 놓기도 하고, 걸레로 열심히 닦아내어도 보았으나 소용없었다.

가구 하나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어디 그뿐이라 그 장롱이 있는 방은 그야말로 죽은 방이 되었다. 썩 맛에 구입한 가구가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생활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아내와 상의하여 버리기로 결정하고 구입한 가구점에 도로 가져가라고 했다. 물론 돈도 돌려 받지 못했다. 아까워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든 냄새 안 나는 가구를 집에 들여 놓고 싶었다. 인터넷을 뒤져 몇 군데 공방을 찾아내고 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온 것이다.

## DIY 가구를 만들어 보자

공방에는 조미숙씨와 황병태씨 외에 대학생, 주부 등 여러 명이 있었다. 처음 한 두달은 교육비를 내고 가구만들기 교육을 받고 이후에는 가구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공방에서 사는 조건으로 마음대로 공방에서 가구를 만들 수 있다.

처음에 홍송이니, 미송이니, 오크니 처음들어 보는 나무의 종류 설명에서부터 시작하여 톱의 종류 및 사용법, 공구의 사용법에 대한 몇 시간의 이론교육에 이어 소형 필기구함 제작 실습에 들어갔다. 원래는 설계를 먼저 해야 하는데 아직 초보라 강사님이 해준 설계에 따라 나무 판을 자르는 실습에 들어갔다.

처음 접해보는 전기톱날 소리, 강사님의 시범에 톱날에서 나는 쇠소리가 귓가에 짹하고 다가올 땐 몸이 바짝 긴장 되었지만 강사님의 지시에 따라 나무합판을 잘라보니 의외로 간단했다. 약간의 흥분감과 함께 자신감도 생겼다.

이번에는 가구의 모양을 내는 일이다. 가는 전기 톱에 나무합판을 서서히 밀어 넣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내는데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못쓰는 합판으로 연습을 거친 후에 자신이 붙으면 시작한다. 말처럼 쉽진 않았지만 몇 번 해보니 언제 힘을 주고, 강약을 조절할 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느낌이 새롭다.

어떤 이는 아이들 이름을 어떤 이는 하트모양, 이외에도 꽃, 나비 등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모양을 냈다. 자기가 만드는 모양대로 가구가 된다니 신기했는데...’ 이것 참 예상외로 재미있는 걸...’

이어지는 작업은 나무 표면 다듬기, 사포로 거친 나무 표면을 문질러 페인트 칠하기 좋은 상태로 다듬는 것이다. 사포는 표면에 붙어있는 알갱이 굵기에 따라 100번부터 400번까지 있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거칠고 굵다. 보통 페인트 칠하기전에는 200번 사포를 사용한다. 그런데 초보자에게는 아직 기계 사포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종이사포를 가지고 열심히 문질러야 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강사님은 사포로 가구 표면을 다듬는 일이 가구 만들기의 반을 차지한다고 했다. 강사님께 검사를 받는 과정을 몇 번 거친 후에 겨우 통과했다.

다음은 칠 작업. 페인트 칠은 가구보호용 페인트로 1차로 칠을 하고 이를 말린 다음, 2차로 자신이 원하는 색깔을 칠하는 것이다. 페인트는 수성과 유성이 있는데 보통 공방에서는 냄새문제와 환경을 생각하여 수성페인트를 사용한다. 집에서 직접가구를 제작하거나 리폼할 경우에는 시중에서 이를 구입할 수 있다.

이번에는 준비된 여러 개의 나무합판을 이어 붙이는 작업, 이 작업에는 핸드드릴이 필요한데 이 또한 처음으로 사용해보는 필자는 신기하기만 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재미있었다. 드릴 작업 시작 시 정확하게 구멍을 뚫어야 할 곳에 뚫지 못하면 재료를 버리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할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색을 칠하는 칠 작업이 끝나고 하루 이를 말리면 가구가 완성된다. 말릴 때는 먼지 등이 묻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마를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가구 하나를 만드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 가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장인이자 초보자인 경우에는 1~2달 걸려 가구 하나를 만드는데 1~2년 숙련된 사람은 몇 일 사이에 가구 하나를 똑딱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가구는 집으로 가져가는데, 처음으로 만든 조그만 모형가구를 집에 들고 가니 아내가 '에게 이게 뭐야' 한다. '여보 다음에는 침대 만들어 줄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줄까? 얘기 해 봐. 애들 것은 이층침대로 만들어야겠지' 하하 이 정도면 좋은 아빠 아닐까...

### DIY 가구를 만들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필자는 공방에 가는 걸 좋아한다. 무엇보다도 원목에서 나오는 냄새가 그리 좋을 수가 없다. 가을 낙엽 태우는 냄새와는 또 다른 자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냄새랄까? 또 거기에 가면 작업을 통해 땀을 흘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가구를 만들 수도 있다.

인생은 참 짧은 것 같다.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한 번 해보고 죽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모두가 마음먹은 대로 되면야...



‘DIY 가구만들기’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한번 해보자. 더욱 좋은 것은 기성 원목가구가 1,2백만원을 호가하는데 반해 DIY 가구는 원목 구입하는데 재료비만 들이면 근사한 원목가구를 집에 들여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원목가구가 집안에 있으면 겨울에 가습기 역할도 하고,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냄새가 자연 방향제 역할도 해서 좋다. 공방에 있는 어떤 이는 집안에서 제일 빛나는 가구는 자기가 만든 원목 가구란다.



어떤 이는 집에서 사용할 가구를 다 만들고 난 후에는 직접 만든 가구를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한다고 한다. 큰 것은 아니지만 정반을 많이 만들어서 이웃, 친구 들에게 주었더니 모두들 무척 좋아하더라. 어떤 이가 정성이 들어간 선물을 마다하라.

손재주가 없으면 어쩌려! 만들어서 재미있고, 가족에게 좋고,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던가? 지름신의 부르심에 큰 맘 먹고 한 번 질러보자. 현기증이 날 만큼 바쁘게 돌아가는 요즘 세상에 머뭇거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필자가 다닌 반쪽이공방의 경우에는 처음 두 달간 매월 10만원 교육비만 들고 이후에는 자기가 만드는 가구의 원목재료를 공방에서 구입하면 언제든지 공방의 공구와 물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인터넷에 공방, DIY라고 치면 내 주위에 있는 공방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

#### 가구만들기를 배울 수 있는 곳들

- ▲반쪽이공방([www.banzzogi.net](http://www.banzzogi.net))=전국 30여개 지점 운영중
- ▲나무풍경(<http://www.woodscape.co.kr>)
- ▲생각을 담은 가구([cafe.daum.net/gounson](http://cafe.daum.net/gounson))=서울 송파·목동, 인천, 경기 안양·파주 등에 체험방 운영
- ▲생활목공클럽([www.diyclub.co.kr](http://www.diyclub.co.kr))=서울·경기·충청 등지의 협력 공방에서 정규교실과 동호회 운영
- ▲MY-DIY([www.my-diy.co.kr](http://www.my-diy.co.kr))=서울·경기·대구·광주 등에 지점 운영 1588-7893
- ▲나무와 나무([www.namu.name](http://www.namu.name))=경기 일산 (031)359-8332